

내년 국적 항공사 11개로 증가… 실적악화 속 경쟁 더 치열

내년 국적 항공사 11개사로 증가
美 보잉사 737-MAX 일시도입
공급 가중으로 시장재편 우려
“경쟁 심화 기준 항공사의 문제”

심한 ‘난기류’에 흔들리고 있는 항공 업계에 재편의 바람이 불어올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신규 LCC(저비용항공사) 3사에 조건부로 운송 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이로써 내년 국적 항공사는 11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최근 대내외적 악재가 겹쳐 낮아진 항공 수요 덕에 국내 항공업계의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데 있다. 인구 대비 항공사 수가 전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신규 면허 발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여기에, 미국 보잉사의 737-MAX 일시 도입 여부도 항공사의 부담을 좌우할 것



LCC 3사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플라이 강원’의 여객기 모습

으로 보인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던 LCC 3사인 플라이강

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가 특별한 문제 없이 내년에 예정대로 취항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면허 발급 조건으로 제시했던 ▲1년 내 AOC(운항 증명) 인증 ▲2년 내 공식 취항을 3사 모두 만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수기로 여겨지는 3분기에 대부분 항공사가 실적 부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여행 보이콧 등으로 대형 항공사는 물론 LCC사들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

내년 신생 LCC 3사가 공식 취항하게 되면 국적 항공사는 기존 8개사(FSC 2개사·LCC 6개사)에서 11개사(FSC 2개사·LCC 9개사)로 늘어난다. 이는 항공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급까지 늘어 치열한 생존경쟁을 예상케 만든다. 이미 한국은 인구(1000만명) 대비 항공사 수에서 1.94개로 ▲태국 1.77 ▲영국 1.65 등과 함께 세계적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단위 면적 대비 항공사 수에서도 ▲한국 1.00 ▲영국 0.45 ▲일본 0.34 등으로 높은 공급 비중을 보이고 있다. LCC 3사의 신규 취항이 항공업계 전체에 부담이라 보는 이유다.

지난해 10월 Lion Air의 추락 사고 이후 전세계적 운항정지 상태에 들어갔던 보잉사의 737-MAX 기종에 대한 국내 항공사들의 일시 도입 가능성도 또 다른 부담 요인이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보잉사는 문제로 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9월 미국 연방항공청에 개선 방안을 제출해 10월 내 운항재개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 6기 ▲티웨이 4기 ▲이스타 2기로 총 12기가 올해 도입될 계획이었다.

업계에서는 사고 이후 1년여의 시간

이 흘렀고 보잉사가 10월 운항 승인 취득 실패 시, 잠정적인 MAX 생산 중단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운항 재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내년 실제로 737-MAX 기종이 일시에 도입된다면 국내 항공사들의 공급 부담이 더 가중돼 항공업계가 자연스레 시장 재편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CC 3사 도입에 따라 과잉 공급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신규 면허 발급이 항공 시장에 ‘악재’라거나 ‘과당경쟁’이란 반응은 항공사의 주장”이며 “신생 항공사는 사업을 3년 동안 하면서 항공기 5대 정도를 도입할 정도이며 경쟁 심화의 원인은 기존 항공사 간 경쟁”이라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skim2935@metroseoul.co.kr

대한상의 “유통산업 구조적 하향세 드러나”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전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 ‘91’집계
무점포소매·백화점만 기준치 넘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전분기 대비 2포인트 하락한 ‘9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분기에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경기전망이 한 분기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기준치(100)를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의 경기전망이 2014년 2분기 이후 L자형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종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유통산업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하향세가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태별로는 무점포소매(105)와 백화점(103)만이 유일하게 기준치를 넘었다. 오프라인 업태인 대형마트(81), 편의점(78), 슈퍼마켓(75)은 큰 폭의 하락

을 면치 못했다.

무점포소매는 105를 기록하며, 4분기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4분기에 계획된 온라인 대규모 할인행사에 온라인 업체들의 실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이다. 온라인에서만 가능한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바탕으로 큰 폭의 매출상승이 일어날 것 이란 전망이다.

대형마트는 최근 5년간 유례없는 경기전망지수 낙폭을 보였다. 대형마트의 4분기 경기 전망은 13포인트 하락한 81로 감소했다. 이는 2014년 3분기 대형마트의 경기전망지수가 112에서 97로 15포인트 하락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감소 폭이다. 추석특수 등이 끝난 4분기에 대형마트의 경기 반등 요인이 적고, 온라인 채널과의 경쟁, 대규모점포 규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백화점은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오른 103을 기록,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긍정적 전망이 앞섰다. 업계는 패션용품 인통패딩, 모피, 코트와 겨울용 침구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화점 경기전망은 작년 4분기에도 기준치를 넘어, 겨울철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은 전분기 대비 9포인트 떨어진 78로 집계됐다. 4분기는 겨울철로 들어면서 편의점이 비수기에 진입하는 시즌이다. 비수기 매출 부진에 대한 우려에 더해 연초부터 제기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은 편의점 경기 전망치 하락의 대표적 요인이다.

슈퍼마켓 역시 9포인트 하락한 75로 조사됐다.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에 더해, 온라인 유통과 최저가 경쟁이 지속되고, 주요 온라인몰이 신선식품까지 판매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올해 6월 음식료품에 대한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유통업체들은 ‘출점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54.1%), ‘제조업 수준의 지원’(16.5%), ‘최저임금 속도조절’(13.5%), ‘카드 수수료 인하’(4.2%),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3.7%), ‘전문인력 양성’(3.7%)을 차례로 꼽았다.

/정연우 기자 ywj964@

한경연,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여전히 기준선 이하

53개월간 100선 아래 머물러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0월 전망치는 97.2를 기록하며 지난달 전망(87.8)에 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선 10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실적치는 89.5으로 조사돼 53개월간 100선 아래에 머물렀다.

30일 한경연에 따르면 내수(99.4), 수출(95.6), 투자(96.7), 자금(95.0), 재고(102.8), 고용(97.0), 채산성(99.7)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이하를 기록했다. 종합경기 전망의 상승에 대해 기업들은 기저효과와 8월 여름휴가와 9월 추석연휴로 감소한 조업일수의 회복 등을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종합경기전망은 작년 5월 100.3을 기록한 이후 17개월 연속 100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내수는 올해 4월, 수출은 작년 6월 각각 100.2, 100.8을 기록한 이후 6개월, 16개월 연속 부정적 심리가 이어지고 있어 한경연은 기업의 부정적 심리가 만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노동비용 증가, 세계 저성장과 무역마찰로 인한 수출 감소 등 현재의 대내외 리스크 해결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경연은 지난 8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데 이어 소비자의 물가상승기대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9월 1.8%로 2002년 조사 개시 이래 최저치를 보이는 등 저물가 우려가 기업 심리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위기설’ 쿠팡, 신주발행 38억 달러 조달

최근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불확실성 탓에 위기론에 휘말린 쿠팡이 신주발행으로 38억 달러를 조달해 에쿼티파이낸스(Equity finance, 신주 발행)를 동반하는 자금 조달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30일 벤처캐피털 동향 조사회사인 미국 CB인사이트를 말을 빌어 쿠팡이 이달 3일 기준 38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그럼에도 쿠팡의 위기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주요 투자자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Softbank Vision Fund)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이진협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 27일 보고서에서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잠재적 매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망했지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 반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